

“건조하고 느릿한 말투 ... 냉혈한 역할 흥미로웠죠”

장혁, 영화 ‘보통사람’서 손현주와 대립 “꼭 한번 만나고 싶었죠”



“영화 ‘보통사람’에서 제가 맡은 규남은 감정이 없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시대가 만들어낸 하나의 시스템인 거죠. 이런 캐릭터는 오히려 안 보여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건조하게 느릿느릿한 말투로 해야 하는 말만 톡톡 던지는 그런 연기를 했습니다.”

드라마 ‘보이스’에서 동물적 본능을 지닌 형사 역을 맡아 화려한 액션을 선보인 장혁이 이번에는 국가를 위해 물불 안 가리는 냉혈한으로 변신한다.

23일 개봉하는 영화 ‘보통사람’에서 그가 맡은 역할은 안기부 실장 규남이다. 정치에 쏠린 국민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연쇄살인 사건을 조작하는 등 각종 정치공작을 자행한다.

그는 “두 캐릭터가 굉장히 다르다”며 “이렇게 다른 색깔의 캐릭터를 비슷한 시기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이런 작품들을 통해 내가 가진 다양한 색깔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배우로서 참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규남은 감정이 없는 캐릭터고 그 시대가 만들어낸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건조하게 느릿느릿한 말투로 해야 하는 말만 톡톡 던지는 그런 연기를 했습니다. 사실 영화에서 이 인물이 움직이는 것은 없어요. 항상 베일 속에 있고 상황을 벗겨보니 그 중심에 이 인물이 있었던 거죠. 그런 캐릭터는 오히려 안 보여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규남’은 배우 손현주가 맡은 주인공 ‘성진’과 대립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장혁은 평소 호형호제하며 친하게 지내던 손현주와 함께 영화를 찍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화 출연을 결정했다고 한다.

“손현주 씨와는 드라마 ‘타짜’에서 만났는데 거기서는 작품이나 연기에 대한 얘기를 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영화에서 안타고니스트(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이전에는 전혀 해보지 않았던 역할이어서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

가는 것도 흥미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영화가 만들어진 후 관객으로 영화를 보니 ‘규남’이 진짜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배역은 미워해도 저는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영화는 1987년을 배경으로 평범한 가정이자 강력계 형사인 성진이 안기부 실장 규남이 주도하는 은밀한 공작에 휘말리면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과정을 그린다.

상식이 통하지 않았던 시대 평범하게 살고 싶어했던 보통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는 “평범하게 산다는 것, 일상을 지킨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며 특히 “누군가에게 캐스팅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배우로서의 일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많은 작품에서 액션 연기를 소화해 낸 그는 드라마 촬영장에 운동기구를 갖고 다닐 정도로 운동광이다. 촬영이 없는 날에는 복싱장에 가서 복싱 연습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다.

그는 복싱 훈련을 통해 배우의 자질도 훈련해간다고 말했다.

“복싱에서 배울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의 차이예요. 그걸 알고 나면 자신을 가다듬게 되죠. 복싱에는 전략도 있고 템포도 있고 리듬감이 있어서 상대 배우가 어떤 템포로 갈까 이런 것들을 몸으로 트레이닝할 수 있죠. 집중력과 끈기도 배울 수 있고요. 물론, 액션 연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합뉴스

나문희·이제훈 영화 ‘아이 캔 스피크’

“세대 뛰어넘는 우정 보여줄 것”

배우 나문희(76)와 이제훈(33)이 영화 ‘아이 캔 스피크’에서 연기호흡을 맞춘다.

최근 영화사 시선에 따르면 ‘아이 캔 스피크’는 틀린 건 바로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민원왕’ 열혈여사와 원적주의자인 9급 공무원이 영어를 배우고 가르치면서 말문이 트이고 서로 마음을 여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린다.

나문희는 동네 일로 끊임없이 구경에 민원을 넣는 나옥분 여사 역을, 이제훈은 나여사의 민원세례에 시달리는 9급 공무원 박민재 역을 맡아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YMCA 야구단’(2002), ‘광식이 동생 광태’(2005), ‘시라노 : 연애조작단’(2010)을 연출한 김현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이달 말 촬영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젝스키스, 데뷔 20주년 기념 전시회

내달 말 개최 ... 활동사진 공개

지난해 16년 만에 재결성한 그룹 제스키스(사진)가 데뷔 20주년 기념 전시회를 개최한다.

22일 가요계에 따르면 4월15일 20주년 기념일을 맞는 제스키스는 4월 말 멤버들의 활동사진 등을 공개하는 20주년 전시회를 계획 중이다. 이달 초 하와이에서 기념 프로젝트 관련 화보와 영상 작업을 하고 돌아왔으며,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전시회 대관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시회에 앞서 기념 음반도 발표한다. 음반 계획은 이미 작년 12월 제스키스가 히트곡을 리메이크한 ‘2016 라-앨범’

(Re-ALBUM)을 출시하면서 가진 기자회견회에서 공개한 바 있다.

소속사는 “신곡 녹음을 진행했으며 싱글과 앨범 등 출시 형태를 논의 중”이라며 “4월 발매가 목표로 20주년 기념일도 고려하지만 준비 상황을 봐야 해 날짜를 확정짓진 못했다”고 말했다. 녹음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멤버들은 오는 30일과 4월 2일 뮤직비디오 촬영을 진행한다.

제스키스는 1997년 1집 ‘학원별곡’으로 데뷔해 2000년 5월 공식 해체까지 ‘학원별곡’, ‘폼새폼사’, ‘연정’, ‘거울’, ‘예감’ 등을 히트시키며 소녀 팬들의 우상으로 군림했다. 지난해 멤버 고지용이 빠지고 다섯 멤버가 봉재 활동을 재개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제나 봄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TV블로그 꿈지락 30 아침연속극 <아이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대기획 요리인류-도시의 맛 55 감성애니 하루 2	00 다시, 첫사랑	00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재)	00 애니갤러리 30 고양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재)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특선다큐 <그래도 행복한 학교 가는길>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네트워킹기획 문화산책 55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자랑방 손님 (재)	20 수목드라마 <자체발광 오피스> (재)	55 닥터 365	
2	10 노래가 좋아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30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00 2시, 뉴스브리핑	
3	10 이웃집 찰스 (재)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2 55 내일은 언제나 무름	20 TV블로그 꿈지락 05 토크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터닝매카드 W 2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자랑방 손님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공사청립특집 8부작 UHD 유네스코 세계유산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김과장>	00 수목드라마 <자체발광 오피스 >	00 드라마 스페셜 <사임당, 빛의 일기>	
11	00 KBS 뉴스라인 40 목요기획 미래 신산업, 플라스마가 뜬다	10 15주년 기획 해피 투게더	10 희망미래에 토크콘서트 청춘진담	10 자기야-백년손님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MBC 뉴스 24 4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3월 23일 (음 2월 26일 己酉)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워동네 걸그룹>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윙스 08:00 당동명 유치원1~2 08:30 똑딱맨 08:45 Why - 최고다! 호기심파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09:15 얼마 까투리(재) 09:30 물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목요일 거자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어든 다섯, 달려라 청춘> 12:40 지식체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크영화 - 김 위외 인생 <키로기즈스탄> 유목민 부자의 도전 14:30 호기심나라 오키도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키 탐험대 15:20 마사와 곰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소(재)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파지(재)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재) 17:30 로보가 놀리 17:45 똑딱맨(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19:00 갤럭시 안전 프로젝트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50 세계테마기행 <인도와의 모리셔스 & 레위니옹 신의 발자국을 따라 마피트합곡> 21:30 한국기행 <봄날은 간다> - 벗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21:50 특집다큐멘터리 0.01초 승부, 기록 전쟁 세계> <0.01초 승부, 기록 전쟁 세계>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금쪽같은 내 새끼랑 24:05 지식채널e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3일 (음 2월 26일 己酉)	
子	48년생 기운에 있어 왔던 것이니 다루기가 용이하겠다. 60년생 전후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72년생 주위의 환경에 따른 변수가 크니 대안을 마련하자. 84년생 침착해야만 목격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6, 27	午	42년생 마음먹었던 대로 진행해도 지장이 없겠다. 54년생 갈구해 왔던 바가 실현될 것이다. 66년생 자기 주관이 있어야만 휘둘리지 않으리라. 78년생 작심한 바와 행동이 시종일관 일치해야 성취하리라. 90년생 낮은 자세로 임하자. 행운의 숫자 : 62, 21
丑	49년생 여유를 갖고 세밀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1년생 순공에 뜻을 달아 놓으니 순조롭게 그지없다. 73년생 임시방편적이라면 무의미하다. 85년생 행방이 묘연하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살펴봐야겠다. 행운의 숫자 : 42, 09	未	43년생 포용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리가 없으리라. 55년생 생산성을 제고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67년생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79년생 열린 시각으로 살펴야 제대로 볼 수 있다. 91년생 굽은 것은 바로 펴자. 행운의 숫자 : 12, 58
寅	50년생 미련을 버렸을 때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62년생 준비해 두었던 것을 시의 적절하게 쓰게 된다. 74년생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라. 86년생 사세가 종합적으로 집약된다면 능률적이다. 행운의 숫자 : 83, 55	申	44년생 전체적인 국면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고찰하자. 56년생 기본적인 역할에 빈틈이 없어야겠다. 68년생 한 톨포만 늦추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 80년생 비슷한 모습이라고 해서 전처럼 계속 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행운의 숫자 : 29, 64
卯	51년생 마음만으로는 아니 되니 반드시 언행으로써 표현해야 한다. 63년생 정성을 다 한다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75년생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행한다면 불변함은 없을 것이다. 87년생 불가피한 인연으로 영향력 하에 놓인다. 행운의 숫자 : 77, 11	酉	45년생 강공이 몰아치니 비바람부터 피하고 보아야 한다. 57년생 타인의 실행 방식을 모방한다는 것은 자기 한계의 징표임을 알게 되리라. 69년생 옳다고 확신한다면 밀어붙여도 된다. 81년생 빨리 철회할수록 이익이다. 행운의 숫자 : 56, 14
辰	52년생 높은 산에 올라 간 적이니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 64년생 멀리 내다보면서 관계를 설정하라. 76년생 단독으로는 힘들 것이니 함께 행하라. 88년생 안에서는 별 것이 없지만 밖에는 이로움이 있다. 행운의 숫자 : 35, 04	戌	46년생 상대의 내심을 읽을 수 있어야겠다. 58년생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매우 불편하리라. 70년생 물질적인 면은 양호하지만 심리적인 압박감이 따를 수 있다. 82년생 양보가 가장 빠르고 유익한 방법이다. 행운의 숫자 : 62, 45
巳	53년생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인해 걱정거리가 생긴다. 65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신스럽다. 77년생 어려워 보여도 막상 실행한다면 가볍게 해결되리라. 89년생 피하러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자. 행운의 숫자 : 17, 29	亥	47년생 제반사가 지연되고 결과도 늦추어질 수 있다. 59년생 관건이 될 만한 핵심 가치에 주목하라. 71년생 근본을 살펴보면 갈 길이 정해질 것이다. 83년생 한 번 나타난 정황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행운의 숫자 : 23, 5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